

경남의 목활자본 연구

A Study on the Wooden Movable Type Printing Books
in Gyeongsangnam-do

송정숙(Song, Jung-Sook)*

◁ 목 차 ▷

- | | |
|-------------------|-------------|
| 1. 서론 | |
| 2. 경남 목활자본 간행의 배경 | 3.3 발행소 분석 |
| 2.1 경남의 자연환경 | 3.4 발행지역 분석 |
| 2.2 경남의 학문적 전통 | 3.5 인쇄자 분석 |
| 3. 경남 목활자본의 분석 | 4. 결론 |
| 3.1 주제 분석 | <참고문헌> |
| 3.2 발행연도 분석 | |

<초록>

가장 일찍부터 가장 후대까지 지식과 정보를 확산하기 위해 사용한 인쇄술이 목활자 인쇄이다. 이 연구는 목활자 인쇄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이념과 목활자본이 생성된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 생산의 주체 등 목활자 인쇄문화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경남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246종을 대상으로 주제, 발행연도, 발행소, 발행지역, 인쇄자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남에서 목활자본은 88%가 문집과 족보이고, 86%가 1890-1939년까지의 50년 동안에 발행되었으며, 80%가 재사와, 누정, 서원에서 발행되었고 81%가 낙동강의 지류인 황강, 남강, 밀양강 연안의 강안지역에서 발행되었고 경남에서 활약한 인쇄자는 23개 지역의 91명으로 조사되었다.

요어 : 목활자본, 경남의 목활자본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songjs@pusan.ac.kr)

접수일: 2004년 11월 30일 최초심사일: 2004년 12월 1일 심사완료일: 2004년 12월 15일

<ABSTRACTS>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study some features of the Korean wooden movable type printing culture mainly in the Gyeongsangnam-do. The author analyzed subject, the year, the place, and the area of publication, and printers of 246 kinds of the wooden movable type printing books which were published in Gyeongsangnam-do.

The result is as follows : 88% of the subjects of the wooden movable type printing books were complete works of each writers and genealogies ; 86% of the year of publication of the wooden movable type printing books were published 1891 to 1940 ; 80% of the place of publication of the wooden movable type printing books were worshipping halls for ancestors, pavilions, and private schools of Chosun Dynasty ; 81% of the area of publication of the wooden movable type printing books were along the riverside of the tributary streams of the Nakdong River ; 91 printers had printed wooden movable printing books in Gyeongsangnam-do.

Keywords : Wooden Movable Type Printing Books,
Wooden Movable Type Printing Books of Gyeongnam



1. 서론

인류의 문화발전에 인쇄술이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인쇄술의 발명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보다 손쉽게, 보다 광범하게, 보다 저렴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식적인 욕구의 산물이다. 대량복제술인 인쇄술의 발명으로 필사하는 사본시대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 변화는 부유한 소수의 엘리트 계층에게만 접근이 용이하였던 고급의 지식과 정보가 저렴한 댓가를 지불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었다. 그리하여 서구에서는 금속활자 인쇄술의 발명이 르네상스, 종교개혁, 과학혁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중세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¹⁾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일찍부터 가장 후대까지 사용된 인쇄술이 목활자인 쇄이다. 그럼에도 목활자 인쇄는 금속활자 인쇄나 목판 인쇄에 비해 학계의 주목을 그다지 받지 못했고, 그리하여 목활자본에 대한 연구성과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²⁾

‘미디어는 메시지이다’라는 맥루한의 말처럼 매체의 종류에 따라 담기는 메시지도 다를 것이다. 즉 금속활자로 찍어내는 내용과 목판에 새겨지는 내용과 목활자로 찍어내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여기서는 전통사회에서 목활자 인쇄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였을까? 그것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왜 그 메시지를 남기고자 했을까? 등에 대해 경남지방을 중

1) 문화변동의 동인의 하나로서 인쇄술은 유럽 전역의 학문사회에서 데이터의 수집, 보관 및 검색의 방법과 정보전달망을 변화시켰다. 그 결과 문예부흥, 종교개혁, 과학혁명을 가능하게 하였다. Elizabeth L. Eisenstein, *The Printing Revolution in Early Modern Europe*, 전영표 옮김, 『印刷 出版文化의 源流』, 서울 범경출판사 1991.

2) 목활자본에 대한 연구는 尹炳泰의 “文繼朴 木活字 考 : 嶺南地方木活字考 其一”, 『圖書館學論集(韓國圖書館·情報學會)』 제4집(1977), 柳鐸一의 “嶺南地方 現存木活字와 그 印刷用具”, 『奎章閣』3호(1979)와 “韓國木活字 印刷術에 대하여”, 『民族文化論叢(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제4집(1983) 이후 적조하다가 청주고인쇄박물관이 2002년 3월 29일에 개최한 한국고활자학술회의에서 목활자본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필자가 이때 “영남지방 간행 목활자본 연구”를 발표했는데, 이 논문은 이 가운데에서 경남지방에서 간행된 목활자본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사회에서 목활자 인쇄를 통해 유통하고자 했던 지식과 정보가 어떤 주제이며,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기획되어 생산되었는가 등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흐름에 대한 파악은 그 사회의 가치관과 시대상을 이해하는 주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특히 경남지방은 우리나라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인접하고 있다. 삼국시대에는 신라와 가야에 소속되었으며, 통일신라·고려·조선을 거치면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였다. 경남은 경북과 더불어 영남문화의 본고장으로서 조선시대에는 학문적으로는 영남학파, 정치적으로는 북인세력의 중심지로서 경상우도 문화를 창조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대상은 주요 고서 소장기관³⁾의 목록을 통해 간행지가 경남인 목활자본을 1차 선별한 후 원문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판본이 목활자본임과 간행지가 경남임을 확인한 246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경남지방 간행 목활자본 246종을 대상으로 주제와 발행연도, 발행소, 발행지역, 인쇄자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경남에서 생산된 목활자본의 전체적인 성격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경남 문화의 독자성과 한국 문화의 보편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경남 목활자본 간행의 배경

2.1 경남의 자연환경

경남 지방에서 생산된 지식과 정보가 목활자라는 인쇄수단을 매체로 하여

3) 이 연구에서 목활자본을 조사한 주요 고서 소장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부산대학교 도서관, 영남대학교 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동국대학교 도서관 등이다.

유통된 문화 현상은 경남 지방의 자연적·역사적 특성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연은 문화의 공간적 요인이고, 역사는 문화의 시간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문화의 자연적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지리적·풍토적 요인을 의미하며, 그것은 다시 지형·지질·경관·기후·기상 등을 의미한다.⁴⁾

영남은 동부의 태백산맥과 서부의 소백산맥 사이의 중앙을 낙동강이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으므로 분지와 평야가 비교적 넓게 발달하여 전통사회에서 인구도 많고 농업생산력도 타도에 비해 높았다. 영남의 남반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은 서부의 소백산지, 중앙부의 저(低)산지, 동부의 태백산지와 남부와 동부의 해안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서부의 소백산지의 산간분지에 거창·함양·안의·산청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동부의 태백산지는 남북으로 뻗어있는 골짜기에 구포를 기점으로 물금·양산·동래·울산 등이 자리하고 있다. 중앙의 낮은 산지에는 낙동강의 지류인 남강과 황강이 흐르며 평야가 많다. 이곳 남강과 황강의 상류 여러 곳에는 절벽과 맑은 물로 조화된 경승지가 많다.

태백산 황지에서 발원한 낙동강은 경남지방에 들어와 황강, 남강, 밀양천 등을 합하여 의창, 삼랑진을 지나 본류유역에 남지평야, 수산평야, 대산평야, 김해평야를 이루고 구포를 지나 사하에서 남해로 흘러들어간다.

거창에서 발원한 황강은 거창분지, 합천분지를 이루고 합천에서 낙동강과 합류한다. 거창 덕유산에서 발원한 남강은 안의분지, 함양분지, 생초분지, 산청분지, 삼가분지, 단계분지, 단성분지, 덕산분지, 진주평야, 의령평야, 함안평야를 형성하고, 의령에서 낙동강과 합류한다. 울주군에서 발원한 밀양강은 밀양평야를 이루고 삼랑진에서 낙동강에 합류한다. 수영강은 동래분지를 이루고, 태화강은 상류에 언양분지, 하류에 울산평야를 형성하였다. 서부경남의 황천강이 섬진강과 만나는 곳이 하동읍이다. 경남지방의 해안지역은 남해안의 삼천포·고성·통영·진해·거제와 동해안의 부산·울산을 들 수 있다.⁵⁾

4) 都珖淳, “영남학파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 東方學會 編, 『嶺南學派의 研究』 (대구: 경상북도청, 1998), 31.

5) 慶尙南道史 編纂委員會 編, 『慶尙南道史(上卷)』 (창원: 慶尙南道史 編纂委員會, 1988),

이처럼 경남지방은 해안지방의 협소한 지역을 제외하면 그 전역이 거의 낙동강 유역에 속하고 있는 비옥한 토지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많은 문헌을 자력으로 출판할 경제적 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2.2 경남의 학문적 전통

경상도는 사족, 사림의 기반이 강한 고장이었다. 조선초부터 이 지방의 재지세력들은 대거 중앙관계에 진출하여 국정을 좌우하는 자리에 오른 자가 많았다. 조선후기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조선은 선조 이전에 국가 권력을 잡았던 자가 대부분 경상도인이라고 했듯이, 경상도는 국초부터 관료를 많이 배출하였다. 경남에서 배출된 대표적인 인물은 창녕의 성석린(成石璘, 성석용(成石溶), 밀양의 변계량(卞季良), 영산의 신극례(辛克禮), 진주의 하륜(河崙)·하연(河演), 고성의 이원(李原) 등이다.

성리학 진흥의 분위기에서 14세기에 경남은 김종직이라는 거유를 밀양에서 배출하였다. 김종직(金宗直)은 고려말 정주학의 대가인 정몽주와 길재의 적통을 전수한 김숙자(金叔滋)의 아들로서 영남 성리학뿐 아니라 조선 성리학을 크게 일으켰다. 김종직의 대표적 제자는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조위, 김일손, 표연말, 이종준 등이다. 이 가운데 김종직의 도학(道學)을 전수한 김굉필은 현풍과 함천에서, 정여창은 함양에서 학문 진흥과 교육에 크게 기여하였다.⁷⁾

경남에서 정여창의 다음 세대 즉 인조, 명종대의 걸출한 인물은 경남의 함천 출신의 남명 조식(曹植)이다. 김굉필과 정여창의 학통을 계승한 그는 삼가(합천)·김해·진주 등에 머물렀으며, 만년에는 지리산 아래 덕천(산청)에서

22-47 참조

6) 조선 왕조의 창업과 사림정치의 실현이라는 실천적 의미를 중시한 성리학을 도통론(道統論)의 관점에서 도학(道學)이라고도 한다
7) 金錫禧, “郭再祐의 起兵과 社會的 基礎” 『忘憂堂郭再祐研究2』 (대구: 忘憂堂記念事業會, 1989), 32-33 참조.

강학의 터전을 정하고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그의 제자 가운데 경남 출신으로는 최영경(진주), 조종도(함안), 정인홍(합천) 등이 유명하였고, 임진왜란 때 경남에서 활약한 의병장은 대개 그의 문도였다.

근세에 와서 경남 유학을 크게 발전시킨 인물은 파리장서의 유럽대표였던 산청의 곽중석(1846-1919)⁸⁾이다. 그는 이황의 학문을 계승한 이진상(李震相)의 주리학설을 받아들여서 퇴계의 학문을 분석하고 주리설을 변론, 기호학계와의 논쟁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곽중석이 남명학이 아니라 퇴계학을 계승한 것은 인조반정 이후 남명학파의 위축과 관련된다. 16세기 후반에는 퇴계학파와 남명학파가 영남의 2대학파로 존재하다가 1623년의 인조반정을 계기로 남명학파가 남인과 서인 양편에 분속되면서 자체의 학파를 제대로 유지시키지 못하고, 17세기 후반부터는 거의 퇴계학파에 통합되다시피 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는 영남학파는 바로 퇴계학파를 지칭하게 되었다.⁹⁾

이를 종합하면, 경남의 학문적 전통은 조선시대의 경우 김종직을 시작으로 남명 조식에 와서 꽃피웠으며, 실천을 강조한 남명의 영향으로 임진왜란때 의병장이 많이 나왔다. 인조반정 이후 남명학파가 크게 위축되어 퇴계학파에 거의 통합되다시피 했다. 한말에는 곽중석을 중심으로 성리학이 크게 융성했으며, 한편으로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여 유교나 불교를 유신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일어났고¹⁰⁾, 일제의 탄압에 맞서 민족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열의도

8) 한말의 유학자로 파리장서의 유럽대표로 활동하였다. 자는 명원이고, 호는 면우이며, 본관은 현풍이다. 경상남도 단성 출생으로 25세 때 이황의 학문을 계승한 이진상의 문하에 들어가 심즉이설(心卽理說)에 심화되었다.

9)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서울: 일조각, 1995), 1-2.

10) 한말의 정치적 격변기를 통해서 성리학에도 새 시대의 풍조가 밀려들었다. 병자수호 조약 이래로 문명개화를 지양하는 개국주의 정책이 취해져서 일본과 중국을 통해서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고 이에 따라 지식층 사이에서는 민족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함께 신학문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주목할 사람은 대학자요 유교개혁운동가인 이병헌(李炳憲, 1870-1940)이다. 그는 일제가 몰수한 전국의 향교재산을 환원하게 했으며, 동서양의 사상과 문화를 복원된 유교에 포용해서 시운과 민족의 여망에 부응하는 참신한 유교 교리로 체계화하고, 중국의 실천적 개혁사상인 변법자강설(變法自強說)의 영향을 받아 실천적 유교로 정립하려 하였다. 강유위, 이승희, 박은식, 김태영, 김구 등과 교류하며

높았다.¹¹⁾

3. 경남 목활자본의 분석

경남지방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246종을 대상으로 주제, 발행연도, 발행소, 발행지역, 인쇄자를 분석하고자 한다

3.1 주제 분석

경남지방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246종을 주제별로 분석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국민정신 계발과 의식개혁을 통한 국권회복 및 부국강병을 목적으로 공자교(孔子敎)의 윤리도덕 문화를 꽃피우고자 유교복원론을 강조하였다. 유교 방면의 이병헌과 같은 유신론자가 나온 것과 같은 시기에 불교계에서도 한용운(韓龍雲), 백용성(白龍城)과 같은 불교 유신론자가 출현하였다. 한용운과 백용성은 3·1 운동 당시 불교계를 대표하여 독립선언문을 기초하는 데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동래 범어사와도 관계있는 사람이다. 불교 유신의 근본 취지는 조선 500년 배불정책의 결과로 산중에 위축된 불교를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민중이 신봉할 수 있는 대중 불교로 개혁하자는 것이었다. 慶尙南道史編纂委員會 編, 『慶尙南道史(下卷)』(창원: 慶尙南道史編纂委員會, 1988), 3035-3040 참조.

11) 일제말기에 가서는 민족문화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어학회에 대한 탄압이 소위 “조선어학회사건”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것은 당시 연루된 학자들 중에 상당수가 경남출신이라는 점이다. 즉. 기소유예 된 사람 가운데는 언양 출신의 정인승(鄭寅承) 마산출신의 이은상(李殷相)이 있었으며, 기소된 사람 가운데는 의령 출신의 이극로(李克魯)와 이우식(李祐植), 울산출신의 최현배(崔鉉培), 동래출신의 김법린(金法麟), 김해출신의 이윤재(李允宰) 등이 있었다. 慶尙南道史 編纂委員會 編, 硯畵, 3035-3040 참조.

<표 1> 주제 분석

대분류	중분류	종수	%	비고
사부	방지	3	1.2	읍지
	보계류	67	27	족보
	전기류	27	11	실기
	지리류	14	5.7	방명록, 서원지, 지리지, 향안
	잡사류	1	0.4	여행기
자부	유가류	7	2.8	예서, 유서, 윤리
	의가류	2	0.8	의서, 의학
집부	별집류	123	50	문집, 시집(6)
	총집류	1	0.4	
기타		1	0.4	문서
합계		246(종)	100(%)	

집부에 속하는 문집이 124종(50%), 사부의 보계류에 속하는 족보가 67종(27%), 전기류에 속하는 실기(實記)가 27종(11%), 지리류가 14종(5.7%)의 순이다. 이 가운데 집부의 문집과 사부 전기류의 실기는 한 개인의 학자로서의 역량과 비범한 삶을 보여준다는 동일한 목적에서 편찬되었으나, 다만 피전자의 저작물의 양에 따라 구분된다. 즉 피전자의 저작물이 많아 전기자료가 부록으로 들어가면 문집으로, 피전자의 저작물이 적거나 없어서 전기자료가 대부분이면 실기로 명명하였다.¹²⁾ 문집과 실기는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문집에 실기를 포함하기도 한다.¹³⁾ 여기에서도 문집에 실기를 포함하면 문집

12) 문집을 편찬할 때 피전자의 저작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문집이 아니라 실기로 명명하는 데, 그 보기로 「강호실기(江湖實記)」를 들 수 있다. 강호실기는 조선초 유학자 강호(江湖) 김숙자(金叔滋)의 유문(遺文)과 사적(事蹟)을 모아 엮은 책이다. 무오사화 갑자사화로 인해 그의 책들은 거의 소실되어 그 후손 김진식(金鎭植)이 유문 몇 편과 관계문헌을 모아 1934년에 목활자로 인출하였다. 내용 중 <학규(學規)>에서는 사대부 자체들의 교과과정 및 학습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5권 2책. 목활자본.

13) 실기를 문집에 포함한 예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볼 수 있다. “실기류(實記類)는 한 개인의 행적을 기록한 일종의 전기적 성격을 가진 책으로 주로 피전자의 행적을 주로 하고, 그가 남긴 시문과 후인들의 송찬 시문을 합하여 간행한다. 본인의 저술은 별로 없고 후인들의 송찬 시문 및 사적이어서 정확한 의미로는 전기류에 속하지만 일반적으로 문집이라는 개념에 포괄되어 사용하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 홈페이지, “문집이란”, (<http://www.koreastudy.or.kr/digital/gojun.php?pky=1&key=27>), 2004.7.1. 접속

(151종, 61%)과 족보(67종, 27%)가 217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한다.

목할자로 인출한 책의 88%가 문집과 족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즉 전통사회에서 문집과 족보의 간행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 일까? 조선시대는 “예는 서민을 내려가지 않고, 형벌은 사대부에 올라가지 않는다.(禮不下庶民 刑不上大夫)”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신분에 따라 적용 되는 규범이 엄격히 구분되는 신분제 사회였다.¹⁴⁾

문집은 한 개인의 저작물을 모아 후세에 남기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혈연과 학연과 지연을 끈으로 한 정신적 구심체, 자가선양(自家宣揚)의 증표로서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조상숭배와 문벌중시의 신분사회에서 이름 있는 조상을 중심한 혈연적 결속이 ‘문집’ 간행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문집은 정신적 구심체라고 할 수 있으며, 향당(鄉黨)의 사회적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현조(顯祖)를 받들거나 그 조상이 남긴 훌륭한 문집을 간행하여 향당에 배포함으로써 일가나 혹은 일족이 사회적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문집은 자가(自家) 혹은 자족(自族) 선양의 증표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족보는 한 씨족(동족)의 시조로부터 족보 편찬 당시의 자손까지의 계보를 기록한 책이다. 이때의 씨족이란 성과 본관이 같아서 동조(同祖)의식을 가진 남계친족을 가리킨다. 족보는 동족의 세계(世系)를 기록한 역사이기 때문에 족보를 통하여 종적으로는 시조로부터 현재의 동족원까지의 세계(世系)와 관계를 알 수 있고, 횡적으로는 현재의 동족 및 상호의 혈연적 친소원근의 관계를 알 수 있다.¹⁵⁾ 가계·재산상속과 혼인 및 거주형태 등 신분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성(姓)과 본관의 문제는 신분사회에 있어 혈통의 귀천과 가계(家格)의 높고 낮음을 판정하는 기준이 됨은 물론, 응시·출사·승음(承蔭) 및 혼인에 이르기까지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 혈통과 가계를 증빙하는 근거가 바로 족보이다.¹⁶⁾

14) 김현영, “호적제도,” 한국고문서학회 엮음, 『조선시대생활사』 (서울:역사비평사, 1996), 408.

15) 崔在錫, “族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 664-665.

따라서 조선후기에는 족보가 없으면 상민으로 전락되어 군역을 저야 했다. 그리하여 상민들은 양반이 되려고 관직을 사기도 하며, 호적이나 족보를 위조하여 새 양반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족보는 양반의 전유물이었고 족보가 있으면 양반이었던 셈이다. 양반은 조선시대 지배계급이었던 만큼 족보를 가진다는 것은 곧 양반의 특권이였다. 족보에 명인달사가 많다는 것은 곧 그 가문이 혁혁한 문벌임을 나타내는 징표였다. 따라서 족보는 양반들의 자랑거리로서 그들이 가장 소중히 생각한 문헌이였다.¹⁷⁾

양반과 동의어로 사용된 사족(士族)이란 항상 사(士)와 족(族)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였고, 어느 한쪽만을 취하지 않았다. 즉 사의 조건인 개인적인 자질과 능력, 족의 조건인 존귀한 혈통의 두 가지를 함께 갖추어야 했다. 아무리 명문·거족이라 하더라도 사로서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사족 곧 양반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없었다.¹⁸⁾

전통사회에서 자신의 가문이 다른 사람의 가문보다 우수함, 즉 자신의 가격(家格)이 우수하다는 것은 사(士)로서의 조건인 학문적 역량이 뛰어난 현조(顯祖)가 있어야 하며, 족(族)으로서의 조건인 혈통이 존귀해야 한다. 전자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문집이 필요했고, 후자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족보가 필요했다.¹⁹⁾ 따라서 혈연공동체에서는 문집과 족보의 편찬이 필수적인 과업이였다. 이는 동족부락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문의 번창함을 이룩하고 영향력의 증대를 통하여 지방사회에서 자신이 속한 문중의 세력화를 꾀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신분제 사회에서 문집과 족보는 신분이 사족임을 증명하는 근거로 기능하였기 때문에 문집과 족보의 발행에 사회와 국가의 제약이 있었다. 조선시대에 문집의 발행은 유림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했으므로 학문과 덕행으

16) 이수진, “족보와 양반의식,” 『한국사 시민강좌(일조각)』, 제 24집 (1999), 21.

17) 송찬식, “족보의 간행,” 『한국사 시민강좌(일조각)』, 제 24집 (1999), 57.

18) 이수진, 앞글, 33.

19) 송정숙, “영남지방 간행 목활자본 연구,” 『한국고활자학술회의』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7), 47.

로, 혹은 국가를 위해 공을 세워 국가나 사회가 문집의 발행을 동의한 경우에 가능했다. 이런 경우에 후손이나 문인들의 경제적인 사정만 허용된다면 목판인쇄를 통해 문집을 발행하였다²⁰⁾.

하지만 신분제의 붕괴로 문집 발행에 대한 향촌사회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던 1890년대 이후부터 목활자 인쇄를 통한 문집 발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목활자 인쇄가 목판 인쇄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든다는 점 이외에 이 당시 이동인쇄업자의 등장으로 목활자 인쇄가 대중화 된 점과 영리를 위한 방각본의 출현 등 출판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과도 관련이 깊다고 하겠다.

족보는 30년-50년마다 개수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부수를 인출하는 데에 적절한 목판인쇄보다는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목활자 인쇄가 족보 발행에 선호되었다고 파악된다. 반면에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부수가 필요한 사서(四書) 등의 경서류의 책은 한번 책판을 제작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목판인쇄가 경제적이었으므로 경남에서 목활자로 인쇄한 경부의 책은 1종도 발견되지 않는다.

3.2 발행연도 분석

경남지방에서 인출된 목활자본 246종을 대상으로 발행연도를 분석하면 <표 2>와 같다. 1930년대가 91종(37%), 1920년대가 57종(23%), 1910년대가 26종(11%), 1900년대가 25종(10%), 1890년대가 12종(5%)의 순이다.

20) 경남에서 목판인쇄를 통해 문집이 발행된 경우는, 성리학의 발전에 기여한 조식의 「南冥先生文集」, 정여창의 「一蠹先生遺集」, 정운의 「桐溪先生文集」, 정구의 「寒岡先生文集」 등이 대표적이고, 국가에 공을 세운 경우는 임란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광재우의 「忘憂先生文集」, 조종도의 「大笑軒先生逸稿」 등이 대표적이며, 절의로 숭상되는 성삼문의 「梅竹軒先生文集」 등을 들 수 있다.

<표 2> 발행연도 분석

발행연도	종수	%	비고
1800-1809	1	0.4	1804
1810-1819	0	0	
1820-1829	7	2.8	
1830-1839	5	2	
1840-1849	1	0.4	1847
1850-1859	2	0.8	
1860-1869	3	1.2	
1870-1879	4	1.6	
1880-1889	0	0	
1890-1899	12	4.9	
1900-1909	25	10.2	
1910-1919	26	10.6	
1920-1929	57	23.2	
1930-1939	91	37	
1940-1949	3	1.2	
1950-1959	3	1.2	
1960-1969	0	0	
1970-1979	1	0.4	1971
미상	5	2	
합계	246(종)	100(%)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남지방에서 목활자본은 1804년에 함양 안의의 구연서원(龜淵書院)에서 출판한 성팽년²¹⁾의 문집인 「석곡선생문집(石谷先生文集)」이 최초이며, 목활자본 발행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890년대부터이다.

1890년대(12종)부터 대폭 증가하여 1900년대(25종)와 1910년대(26종)는 1890

21) 성팽년(成彭年, 1540~1594) :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고 호는 석곡(石谷)이며, 안음(安陰) 출신이다. 1564년(명종 19)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유생으로 있었다. 그러던 중 1569년(선조 2)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학업을 그만두고 오직 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하였다. 효행으로 천거받아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김면(金沔)이 고령·거창·현풍 등 경상도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이 때 정유명(鄭維明) 등과 함께 안음에서 기병유사(起兵有司)로 창의문(倡義文)을 발통하는 등 김면의 참모가 되어 의병활동을 하였다. 시문과 글씨에 뛰어났고, 의학(醫藥)·복서(卜筮)·산경(山經)·지지(地誌) 등 유학 이외의 분야도 두루 섭렵하였다. 지평에 추증되고, 안의(安義)의 구연사(龜淵祠)에 제향되었으며, 저서로는 문집인 「석곡집」이 있다. 李泰鎮, “成彭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2, 552.

년대에 비해 2배 증가하였고, 1920년대(57종)는 1910년대에 비해 또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1930년대(91종)에는 1920년대의 2배 가까이 증가하여 정점을 이루었다. 그러다가 1940년대(3종)에 갑자기 위축된 이후 1950년대까지 명맥만 유지하다가 1971년 함안의 도천재(道川齋)에서 인출한 이태문(李泰文)의 『단최문집(晩最文集)』을 끝으로 더 이상 목활자본은 생산되지 않았다. 이로 볼 때 경남지방에서 목활자본은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170년 동안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90년부터 1939년까지의 50년 사이에 전체의 86%에 해당하는 211 종이 발행되었다. 이 시기에 목활자본이 많이 발행된 것은 조선후기의 사회신분관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고 보아진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향리·서얼 등 중인층의 신분상승운동이 활발하여졌다. 신분상승운동의 결과로 1779년(정조 3)에는 서얼허통(庶孽許通)이 실현되어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등 서얼출신 실학자들이 국가관리로 등용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19세기 이후로 이들 중인층의 관직진출을 활발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근대화의 선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실학자들은 조선후기 사회가 불안한 가장 큰 원인은 문벌귀족들이 토지와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새로운 토지제도와 공정한 인사제도를 마련하여 직분과 능력에 따라 토지와 관직을 재분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이 생각하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은 단지 직능상의 구분일 뿐 사(士)가 특권층으로서 양반귀족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실학자들은 양반의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있어왔던 노비세전제(奴婢世傳制)·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 등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더구나 임진왜란 이후로 노비의 도망이 일반화되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이러한 논의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리하여 1801년(순조 원년)에는 공노비를 해방하였고, 1886년(고종 23)에는 노비신분의 세전을 금하였고,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에서 공사노비제 자체를 폐지하지 않을 수 없

었다.²²⁾

이와 같이 19세기에 들어 노비가 해방되는 등 신분제의 붕괴로 인해 문집과 족보의 출판에 따른 사회와 국가의 제약이 완화되었다. 한말과 일제시대에 북한지방과 신흥세력들에 의한 족보의 창간도 많았던²³⁾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선후기에 이르러서 신분간의 구별이 크게 뒤섞이게 됨에 따라²⁴⁾ 양반신분을 보존하기 위해 문집과 족보의 발행이 더욱 활기를 띤 면도 있다. 한말과 일제 때는 조선전기부터 족보를 편간했던 명문·거족들의 족보 속간도 더욱 활발했던 사실이 이를 대변한다.

1920년-1939년까지 20년 동안에 전체의 60%인 148종의 목활자본이 발행되어 정점을 이루었다. 이는 조선조의 멸망으로 족보가 공적(公的) 문서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여 족보 발간에 따른 국가의 제제가 없어졌고, 신분제가 붕괴되면서 문집 간행에 대한 향촌사회의 제약이 없어졌으므로 경제적인 여건만 허락된다면 출판이 가능했던 것이 중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동인쇄업자의 출현 등 목활자본의 생산 기반이 구축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19년 3·1독립운동 이후 일제의 통치전략이 문화정책으로 바뀜에 따라, 출판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정치적인 문헌은 발행하기 어려웠던 반면 정치성을 띄지 않은 족보나 문집류 간행에는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었던 당시의 시대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파악된다.

22) 韓祐勳·李成茂 編著, 「史料로 본 韓國文化史 朝鮮後期篇」(서울: 일지사, 1985), 200-201.

23) 이수진, 앞글, 45.

24) 壬辰·丙子亂의 大戰亂을 거치는 동안 국토는 거의 破滅되고 농민은 이산하여 국가재정은 크게 곤핍하게 되었다. 이에 국가에서는 경상비의 부족은 물론 軍功을 세운 유공자들에게 포상할 재원조차 모자라게 되었다. 그리하여 軍功從良·官職賣買 등이 광범하게 실시되었다. 이는 기존의 신분질서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되었다. 아울러 비록 양반이라 하더라도 계속되는 정쟁에서 밀려나거나 경제적 기반을 잃게 되면 양반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반면에,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힘입어 재산을 모은 良·賤人들을 空名帖·官職買收·軍功을 통하여 쉽게 양인이 되거나 양반이 될 수 있었다. 韓祐勳·李成茂 編著, 앞책, 201.

3.3 발행소 분석

경남지방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246종 가운데 서발문이나 인기(印記), 판권지를 통해 발행소를 확인할 수 있는 191종을 대상으로 발행소를 분석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발행소 분석

발행소		간행종수	%	비고	
서원	서원	6	31	16.2	書舍(1), 書室(1)
	서당	17			
	정사	8			
누정	누정	29	45	23.6	
	당	16			
재실		76	25.1		
개인		29	13.1		
보소·간역소		3	1.6		
기타		4	2.1		약방(1), 여관(1), 향교(2)
미상		3	1.6		
합계		191	100		

재사에서 발행된 것이 76종(25.1%)으로 가장 많고, 누정에서 발행된 것이 45종(23.6%), 서원에서 발행된 것이 31종(16.2%), 개인의 집에서 발행한 것이 29종(13.1%)이다. 발행소를 분석한 결과를 볼 때 왕실이나 국가기관 혹은 지방관청에서 발행된 목활자본은 1종도 발견할 수 없었다. 목활자본의 발행주체가 재사나 누정, 서원 혹은 개인인 것으로 미루어 목활자 인쇄는 민간에서 주로 이용한 인쇄수단임을 알 수 있다.

재실, 누정, 서원에서 발행한 목활자본은 모두 152종으로 발행소가 확인된 191종의 80%에 달한다. 그러면 전통사회에서 재실이나 누정 혹은 서원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일까? 재실(齋室) 즉 재사는 시조나 중시조의 묘소 또는 지파(支派)의 회진(會奠) 근처에 세워진 건물이다 일반적으로 재사 근처에는 선산, 종산, 위토가 있고, 재사에는 묘직(墓直) 또는 산직(山直)이 살

고 있다. 재사는 문중 또는 지파의 공동재산이지만 재사의 유지, 보수, 수축의 총책임자는 종손이나 직계장손이다. 재사는 시향제(時享祭)나 묘사의 준비 장소로 또는 선산, 종산, 위토 등 문중공유재산문제, 재사의 유지나 수축문제, 유사나 산직의 문제, 그리고 그해 제례과정, 전체평가 등을 논의하는 종회(宗會)장소로서 기능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음복과 문중회의를 재사에서 행하기도 하였다.²⁵⁾ 누정(樓亭)은 사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루바닥을 지면에서 한층 높게 지은 다락식의 집으로 누각과 정자를 함께 일컫는 명칭이다.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 학문연구와 선현제향(先賢祭享)을 위하여 사림에 의해 설립된 사설교육기관인 동시에 향촌자치운영기구이다. 1871년에 학문과 충절이 뛰어난 인물에 대하여 일인일원(一人一院) 이외의 모든 첩설서원을 일시에 훼손하게 함으로써 전국에 47개소만 남겨두게 되었으나, 흥선대원군이 하야한 뒤 훼손된 서원 상당수가 재건된 것으로 보이며, 일제가 지주층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조상숭배를 조장하였던 배경 하에서 중건되기도 하였다.²⁶⁾

양반들은 그들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서원·사우(祠宇)·누정(樓亭)·묘비 등을 세우고, 또 서원이나 사우 혹은 누정이 구심점이 되어 족보나 문집을 간행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문중에서는 종회(宗會)·종계(宗契) 등을 만들어 종중(宗中) 재산을 모았다. 즉 개인은 몰락해도 양반신분을 보존하려는 뜻에서였다. 이처럼 19세기에 이르면 재사나 누정, 서원은 모두 후손에 의한 조상의 제향처 내지 족적 기반의 중심지로서 재사나 누정, 서원과 학문적·혈연적으로 관련있는 인물의 문집이나 실기 또는 족보를 발행하였다.

발행소와 간행된 문헌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발행소에 따른 족보와 문집의 간행종수를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25) 柳承武, “齋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360.

26) 정만조, “서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2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9-12.

<표 4> 발행소에 따른 족보와 문집의 발행종수

	족보	문집*
서원	9	18(4)
누정	8	32(10)
재사	31	35(5)
개인	12	10(1)

* 문집에는 실기를 포함했으며, ()안은 실기의 종수임

이로 볼 때 학문공동체적인 성격이 짙은 서원과 누정에서는 서원에서 향사하는 인물이나 그들과 학연이 있는 인물의 문집의 발행이 단연 우세하고, 혈연공동체적인 성격이 짙은 재사와 개인(중손 혹은 門長)은 자신이 고귀한 혈통임을 증명하는 족보와 자신의 가문이 학문적 역량이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문집의 발행이 비슷하였다. 이외에 보소와 간역소는 서적출판을 위해 임시로 설치한 기구로서 여기에서 간행된 3종은 모두 족보이다.

3.4 발행지역 분석

경남지방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246종을 발행지역별로 보면 <표 5>와 같다.

<표 5> 발행지역 분석

지역	종수	순위	지역	종수	순위
울산	7		함양	16	6
양산	1		거창	16	6
동래			합천	39	2
밀양	19	5	하동	7	
창녕	5		남해		
김해	6		통영	1	
창원	11	9	사천	3	
의령	14	8	거제		
함안	30	3	진해		
진주	25	4	부산	1	
고성	3		미상	1	
산청	41	1	합계	246	

경남의 22개 지역 가운데 목활자본 발행이 없는 동래·남해·거제·진해의 4지역을 제외한 18개 지역에서 목활자본이 간행되었다. 발행종수를 보면, 산청에서 발행된 것이 41종으로 가장 많고, 합천(39종), 함안(30종), 진주(25종), 밀양(19종), 함양(16종)·거창(16종), 의령(14종)의 순이다. 경남에서 목활자본이 많이 출판된 상위 8위에 속하는 지역을 보면, 산청·함안·진주·함양·의령은 남강유역이고, 합천과 거창은 황강유역이며, 밀양은 밀양강 유역에 위치한다. 이로 볼 때 상위 8개 지역이 모두 낙동강의 지류들이 흐르는 강안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이들 강안지역은 분지나 평야를 이루어 경제적으로 해안지역에 비해 여유가 있었던 것과는 관련이 있고, 또 이는 경남은 해안지방의 협소한 지역을 제외하면 그 전역이 낙동강 유역에 속하고 있는 것과는 관련이 깊은 것으로 해석된다.

경남지방에서 목활자본이 주로 생산된 곳은 중부지방의 밀양을 제외하고는 산청, 합천, 함안, 진주, 거창, 함양 등 서부지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경남지방의 경우 조선조 성리학의 학문적 전통이 하나는 김종직이 출생한 밀양에서 이어지며, 이 전통은 조선 후기 성재 허전이 김해부사로 부임해 음에 이 지역의 학자들이 고무되어 밀양에서 『성호선생문집』을 출판했던 것과는 관련이 깊다고 하겠다. 경남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학문적 전통은 김굉필과 정여창, 조식이 강학했던 합천과 산청, 함양, 진주, 함안 등 남강과 황강 유역이 위치한 서부 경남지방에 이어지며, 이러한 지적 분위기로 인해 이 지역에서 목활자본의 생산이 활발하였다고 파악된다.

아울러 현대사회와 달리 농업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하였던 전통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강안지역이 지식과 정보의 교류도 활발하였으므로 이곳에 목활자본의 생산도 활발하였다고 파악된다. 그리고 경남지방에서 종이 생산이 활발했던 지역이 진주, 의령, 함양, 거창, 안의, 삼가(합천)인데,²⁷⁾ 책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종이를 확보하기가 용이했던 것도 이 지역에서 목활자본이 많이 발행되는 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

27) 日韓書房 編輯部, 『最新朝鮮地誌』(경성: 日韓書房, 1912), 298-299.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안지역인 고성(3), 통영(1), 진해(0), 부산(1), 동래(0) 등과 도서지역인 남해(0), 거제(0) 등은 목활자본이 간행되지 않았거나 있더라도 간행종수가 매우 적다. 이는 해안지역과 도서지역이 지리적으로도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하여 지식과 정보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라 이래 왜구의 침입로였기 때문에 상무(尙武)풍조가 승문(崇文)풍조를 압도한 것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해석된다.

3.5 인쇄자 분석

경남 지방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246종 가운데, 판권지에 명기되어 있는 인쇄자 91명을 거주지역에 따라 분석한 것이 다음 <표 6>이다. 인쇄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산청과 함천으로서 각각 17명이고, 다음이 진주(11명), 함안(6명), 창원(5명), 거창·밀양·의령(각 4명), 고령·창녕·함양(각 3명), 김해·사천·울산(각 2명)의 순이다. 산청과 함천, 진주, 함안에 각수가 많이 거주함은 이 지역이 목활자본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진다. 이 지역은 경남지방의 대표적 학자인 남명 조식이 출생하고 강학하여 그의 학풍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곳으로 학문을 존숭하였고, 동족부락이 많다. 이에 따라 문집이나 족보 발간에 대한 수요가 많았으므로 이 지역에서 활동한 각수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목활자본의 인쇄자가 1명도 거주하지 않는 지역은 통영·진해·부산·동래의 해안지역과 남해·거제의 도서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지역은 통영과 부산(각 1종)을 제외하고는 목활자본이 1종도 발행되지 않은 지역이다. 이로써 목활자본의 수요가 없는 곳에는 공급자도 거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최다 인쇄자는 함안의 진두상(10), 산청의 권우용(9), 강성호(8)의 순이고, 3종 이상 인쇄자는 10명으로서 산청의 권우용(9), 강성호(8), 심광섭(3), 함안의 진두상(10), 문일현(3), 함천의 김만중(3), 차병무(3), 진주의 류근화(3), 밀

양의 하기병(4), 울산의 이석구(3)이다.

경주의 최석희는 울산에서 「경주최씨세보(1923, 1924)」를 발행하였고, 고령의 전용우는 합천에서 「용산범국회록(1931)」, 고령의 전해택은 함안에서 「현포일고(1929)」와 합천에서 「조암선생문집(1934)」, 고령의 최태경은 거창에서 「동와유고(1930)」, 달성의 박해인은 밀양에서 「벽오유집(1928)」, 대구의 이치현은 창녕에서 「진양하씨문헌록(1924)」, 남원의 오춘근은 함양에서 「충주지씨문헌지(1925)」를 발행하였다. 이처럼 경북 혹은 전남의 인쇄자들이 이웃하고 있는 경남지방에서 활약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의 생활세계가 행정 체계에 의해 결정되거나 행정적 경계와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²⁸⁾

기업의 형태로 부자간, 형제간에 목활자인쇄를 한 경우가 있으니, 산청의 삼상복과 심학섭, 심주섭, 심광섭(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563), 산청의 조민순·조민형(산청군 단성면 자양리 46), 산청의 권우용과 권재희, 합천의 정현병·정현질(합천군 쌍백면 육리) 등이 그 보기이다.

경남에서 활동한 인쇄자가 23개 지역의 91 명이라는 사실은 목활자본에 대한 수요가 있는 곳에는 인쇄자가 거의 거주하고 있었으며, 목활자 인쇄가 상당히 대중화 되었음을 보여준다.



28) 김광익, “지방연구방법론 개발을 위한 시론”, 역사문화학회 편,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2집(2000), 10.

<표 6> 인쇄자 분석

지명	인쇄자수	인쇄자
거창	4	김제수, 신태성, 최장근, 표정학
경주	1	최석희 (2)
고령	3	전용우, 전해택(2), 최태경
고성	1	김기민
김해	2	정경문, 진서범
달성	1	박해인
대구	1	이치현
밀양	4	권영한(2), 박경한, 엄영한, 하기병 (4)
사천	2	심주섭, 이종욱
산청	18	강성호(8), 권동혁, 권우용(9), 권재정(2), 권재희, 박순병, 배영대, 신종근, 심상복, 심광섭(3), 심학섭 (2), 심주섭, 이석우, 이 휘주, 조민순, 조민형, 조병직,
양산	1	박영중
울산	2	이석구(3), 차진호
의령	4	강신기, 강신오, 신홍삼, 전일출
진주	11	김영규, 류근화(3), 신종근, 윤상선, 이병영 (2), 이종언, 이종현 (2), 정규용, 정덕영(2), 허우, 황복식
창녕	3	김진수, 서영흠, 서정숙
창원	5	김식용, 문일현, 손정갑, 신태형, 조정호
하동	1	안민영
함안	6	국진호(2), 문일현 (3), 이장호, 이현량 (2), 임기후 (2), 진두상 (10),
함양	3	류기정, 박병진, 정장현
합천	17	권재홍, 김만중(3), 문정호, 박호익(2), 변정조, 송현식, 신성균, 이도명(2), 이상근, 이준서, 정현병(2), 정현질(2), 정희영, 조병식(2), 차병무(3), 차병학
진북남원	1	오춘근
합계: 23지역 ;인쇄자 -91명		

* ()안은 발행종수이며, () 가 없는 사람은 발행종수가 없음 .

4. 결 론

인쇄문화는 지식과 정보를 확산하고자 하는 국가와 사회와 개인의 노력에 의해 창안, 발전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탐구는 그 시대의 핵심 가치와 그 시대인이 지향하는 세계관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경남에서 발행된 목활자본 246종을 대상으로 주제, 발행연도, 발행소, 발행지역, 인쇄자를 분석하였다.

목활자로 인출된 책 가운데 문집과 족보가 대부분(217종, 88%)을 차지함은 자신이 학문적 역량과 고귀한 혈통을 지닌 양반, 즉 사족임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다. 1890년부터 1939년까지 50년 사이에 86%인 211종이 발행된 것은 19세기 말에 이르러 신분제의 붕괴로 인해 문집과 족보의 발행에 따른 사회와 국가의 제약이 없어짐과 동시에 이동인쇄업자의 출현으로 목활자 인쇄가 대중화되었던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진다. 발행소가 확인된 목활자본의 80%인 152종이 재사나 누정 혹은 서원에서 발행되었는데, 이곳은 모두 후손에 의한 조상의 제향처 혹은 족적 기반의 중심지로서 이곳과 학문적, 혈연적으로 관련있는 인물의 문집이나 실기 또는 족보를 발행하였다. 목활자본의 81%인 200종이 낙동강의 지류인 남강과 황강, 밀양강 유역 등 강안지역에서 생산되었는데, 이는 이 지역의 경제력, 학문적 전통, 종이 확보의 용이함 등과 관련이 깊다. 아울러 경남에는 91명의 인쇄자, 즉 각수가 활동했는데, 이들은 주로 목활자본의 수요가 많은 강안지역에 거주하였다. 이는 수요가 많은 곳에 생산자가 많이 위치하는 아주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하겠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경남에서 목활자 인쇄는 한말, 일제시대에 이르는 시대의 변혁기에 전통적인 가치를 지속, 보존하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연구가 경기, 호서, 강원 등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의 파악과 아울러 한국 인쇄문화에서 목활자인쇄의 전모가 파악될 것이다. 아울러 산청, 함천, 진주, 함안 등 각 지역별 간행된 목활자본을 살펴보면 각 지역의 문화적 특색이 더욱 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참고문헌>

- 慶尙南道史 編纂委員會 編, 『慶尙南道史(下卷)』, 창원: 慶尙南道史 編纂委員會, 1988.
- 김광억, “지방연구방법론 개발을 위한 시론”, 역사문화학회 편,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2집(2000)
- 金錫禧, “郭再祐의 起兵과 社會的 基礎.” 『忘憂堂郭再祐研究(2)』, 대구: 忘憂堂記念事業會, 1989.
- 김현영, “호적제도.” 한국고문서학회 엮음, 『조선시대생활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 都洵淳, “영남학파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 東方學會 編, 『嶺南學派의 研究』, 대구: 경상북도, 1998.
- 柳承武, “齋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9,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柳鐸一, “嶺南地方 現存木活字와 그 印刷用具.” 『奎章閣』 3호, 1979.
- 柳鐸一, “韓國木活字 印刷術에 대하여.” 『民族文化論叢(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제4집(1983).
- 日韓書房 編輯部, 『最新朝鮮地誌』, 경성: 日韓書房, 1912.
- 송찬식, “족보의 간행.” 『한국사 시민강좌(일조각)』, 제24집(1999).
- 송정숙, “영남지방 간행 목활자본 연구.” 『한국고활자학술회의』,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7.
- 尹炳泰, “文繼朴 木活字 考: 嶺南地方木活字考 其一.” 『圖書館學論集(韓國圖書館·情報學會)』, 제4집(1977).
- 이수건, “족보와 양반의식.” 『한국사 시민강좌(일조각)』, 제24집(1999).
-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서울: 일조각, 1995.
- 정만조, “서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2,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韓祐旻·李成茂 編著, 『史料로 본 韓國文化史: 朝鮮後期篇』, 서울: 일지사, 1985.
- 崔在錫, “族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Eisenstein, Elizabeth L., *The Printing Revolution in Early Modern Europe*, 전영표 옮김, 『印刷 出版文化의 源流』, 서울: 범경출판사, 1991.